제15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서 -

2023. 5.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목 차

I. 출장 개요 / 1

II. 출장 성과 / 3

III. 주요 활동 / 5

1. 독립재정기구 네트워크 의장 및 OECD 국장 면담 ····· 5
2. 회의 리셉션 참석 ····· 11
3. 제15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 14
4. 아이슬란드 의회 및 의회 최초 설립지 방문 ····· 44

※ 별첨자료

[별첨 1] 제15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가자 명단 ····· 47

[별첨 2] 아이슬란드 현안자료 ····· 54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제15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및 주제 발표

❑ 관계자 면담 및 아시안 PBO 네트워크 출범('23.10. 예정)을 위한 회원국 협의

❑ OECD 및 OECD 독립재정기구 네트워크(IFI Network)와 지속적인 교류·협력 방안 모색

2 출장 지역

❑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3 출장단

❑ 단장 : 조의섭(국회예산정책처장)

❑ 단원 :

○ 이상준(기획예산담당관)

○ 김홍준(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공보담당)

○ 윤해숙(기획예산담당관실 대외협력주무관)

4 출장 일정

날 짜	주 요 내 용 (7박 9일)
4.10(월)	○ 인천 → 프랑크푸르트(13시간 10분) ○ 프랑크푸르트 → 레이캬비크(3시간 40분)
4.11(화)	○ OECD 등 유관기관 면담 및 회의참석 준비
4.12(수)	○ OECD 등 유관기관 면담 및 회의 리셉션 참석
4.13(목)~4.14(금)	○ 제15회 OECD 독립재정기구(IFI) 및 의회예산기구(PBO) 회의 참석 및 발표 - 발표 세션: 세션4(기후 변화와 공공 재정) - 발표 주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소개 및 분석 ○ 아이슬란드 의회 방문
4.15(토)	○ 아이슬란드 의회 최초 설립지 방문
4.16(일)	○ 자료 취합 및 회의 결과 정리
4.17(월)	○ 레이캬비크 → 헬싱키(3시간 25분) ○ 헬싱키 → 인천(11시간 50분)
4.18(화)	○ 인천 도착

II. 출장 성과

1 글로벌 재정현안과 이에 대한 OECD 회원국 재정기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관련 자료 수집

○ 저성장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압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재정 지속가능성, 보건의료 지출 등 OECD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재정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하고, 각국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

○ 특히, 최근 독립재정기관들이 논의하는 아젠다(Agenda)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같은 전통적인 논의 뿐만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한 재정 차원의 대응과 영향력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전달 방안(시각화 등) 등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2 각국 참석자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확장

○ 제15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스페인, 아일랜드, 호주 등 각국의 독립재정기구와 무디스 등 관련 기관에서 약 100여명이 참여

○ 새로운 참석자와의 교류 확장

- 예) 캐나다 온타리오주 PBO 처장 Peter Weltman과 지방정부 차원의 PBO의 설립과 운영 방식에 관해 논의
- 예) 영국 OBR Andy King과 기후위기 관련 유럽 및 한국의 제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고령화 추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해 논의

3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관한 선례 제시

- OECD 독립재정기구에서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OECD 측 요청에 따라 2022년 한국에 도입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소개와 분석에 관한 발표를 수행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소개와 더불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함.

4 아시아 PBO 네트워크 출범과 관련한 OECD와의 협력 강화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아시아 PBO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OECD와 상호협력확인서를 서명한 이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력해왔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년 10월 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아시아 국가 중 PBO를 보유한 국가들과 아시아 PBO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으로, Mark Hadley OECD 독립재정기구 네트워크 의장 및 Jon Blondal OECD 국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OECD 측에서 네트워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음

5 NABO 직원의 OECD 파견 관련 협의

- OECD가 효율적인 정책 추계 방안에 대한 프로젝트(a project on creating best practices for policy costing)의 자문팀(consultation team)에 NABO가 참여해줄 것을 제안함에 따라, 작년 말부터 NABO 직원을 OECD로 파견하였음.
- OECD의 비용 추계 관련 업무 고도화 등 NABO 직원 파견에 따른 업무 성과를 살피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

III. 주요 활동

1 독립재정기구 네트워크 의장 및 OECD 국장 면담

가 회의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11:00

❑ 장소 : 레이캬비크 사가 호텔

❑ 참석자 :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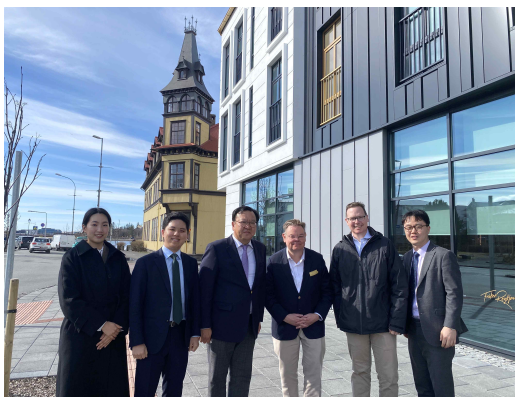
이상준 기획예산담당관, 김홍준 홍보·공보담당, 윤해숙 주무관

Mark Hadley OECD 독립재정기구 네트워크 의장
(미국 CBO 최고운영책임관)

Julie Topoleski CBO 국장

Jon Blondal OECD 예산·공공지출국 국장

Scherie Nicol OECD 정책분석관



나 주요 내용

(1) 요 약

❑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와 OECD가 협업하여 추진 중인 아시아 PBO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과 금번 회의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하기로 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2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제14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에서 Mark Hadley 의장과 Jon Blondal 국장을 만나 2023년에 아시아 PBO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논의를 한 바 있음.

올해로서 네트워크 구축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두 인사를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국회예산정책처 설립20주년 기념 국제포럼에 초청하였음.

❑ 이외에도, 한국 경제와 회의 개최국이자 Jon Blondal 국장의 고향인 아이슬란드 경제에 관한 비교, 한국의 재정 기조와 예산 처리 과정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눔.

(2) 면담 내용

○ **(조의섭 처장)**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번 회의에서 OECD에서 요청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해 발표할 예정임. 대한민국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만큼, 한국의 경험을 다른 회원국과 공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 **(Mark Hadley 의장)** 미국의 CBO도 기후 분석에 투자하고 있고, 전 세계적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책 분석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 중임. 다만 해당 이슈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만큼 예산 담당자들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로서 미국의 "Farm Bill"과 같은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음.

○ **(조의섭 처장)** 예정처는 그간 아시아 PBO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각 국가들과 접촉해왔는데, 캄보디아·몽골·태국·필리핀 등 국가들이 우호적인 회신을 해왔음. 올해 예정처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10월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인데, 동 회의에서 아시안 PBO 네트워크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임.

- **(Jon Blondal 국장)** 먼저 NABO의 20주년을 축하하며 OECD와 NABO의 각별한 사이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람. NABO가 아시안 PBO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이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아시아 내 PBO 기관 파악 등 OECD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말씀주기를 바람. CBO나 NABO처럼 독립적인 기관들도 있지만 의회 위원회 소속 예산 전문가만 있는 국가도 있는데, 향후 이런 국가도 포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음. OECD와 함께하는 이벤트 기획이나 아젠다 세팅에서도 도울 수 있다면 적극 돕겠음.

○ **(조의섭 처장)** 최근 OECD로 NABO직원(이유미 과장)을 파견 보낸 바 있는데, OECD에서의 성과는 어떠한지?

- **(Jon Blondal 국장)**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파견된 이유미 과장은 OECD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OECD에서 비용 추계 등과 관련한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업무상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조의섭 처장)** 이번 회의가 개최된 아이슬란드의 경우 PBO의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작은데, 회의 준비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 **(Jon Blondal 국장)** 말씀하신대로 아이슬란드는 작은 국가여서 CBO처럼 규모있는 PBO가 아니고 10명 미만의 규모의 분석요원으로 운영 중. 공공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정책과 의회 정책 선정에 미래지향적인 조언을 제공을 역할을 수행함. 아이슬란드는 노르딕 국가 중 하나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과 자주 회의를 가져오다보니, 각종 회의 개최에 익숙해져 있어 회의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 **(Scherie Nicol 정책분석관)** 아이슬란드 기재부와 면담을 가지고 왔는데, 재정 기조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 현재 아이슬란드는 수요가 증가하고 관광업이 다시 성장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수익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아이슬란드 정부는 지출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하는지 고민이 많음. 이에 대한 견해와 한국 경제의 기조를 공유 부탁드림.

- **(조의섭 처장)** 한국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지출이 크게 늘었고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고물가 상황과 연금재정 부족 등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경기 활성화로 인한 과열을 고민하는 아이슬란드의 상황은 나름대로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함. 경기가 호조를 보일 때와 난조를 보일 때의 고민의 양상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임.
- **(이상준 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한국 정부는 전반적으로 긴축 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작년 대선에서 진보/보수로 정당을 구분할 경우 보수에 해당하는 정당이 당선되면서 확장 재정 기조 역시 약화된 상태임. 그럼에도 한국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지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는 예외를 두어 사회적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함.

○ **(Scherie Nicol 정책분석관)** 보내주신 발표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이른바 '그린 워싱(Green washing)'이라 불리는 온실가스 관련 예산의 과다계상 문제를 잘 지적해주었다고 생각함. 유럽에서는 기후 대응 예산 지출을 녹색(Green) 지출, 갈색(Brown) 지출, 회색(Grey) 지출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이런 분류가 있는지?

- **(조의섭 처장)** 세부사업 단위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보니,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 중 일부만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더라도 세부사업 전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인 것처럼 과다계상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기후 대응 예산 지출의 분류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기후 대응 지출이 따로 분류되어있지는 않은 상태임.

다 초청장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1 Uisadang-dae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07233
Phone: +82-2-6788-4621 Fax: +82-2-6788-4686 URL: https://korea.nabo.go.kr/

31 March 2023

Mark Hadley
Chief Operating Officer and General Counsel
Congressional Budget Office
Ford House Office Building, 4th Floor
Second and D Sts., SW
Washington, DC 20515-6925

Dear Mr. Mark Hadley

We are pleased to invite you to attend the International Forum commemo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which will take place in Seoul, Republic of Korea, in October 2023.

Over the years, NABO has been dedicated to promot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budget process, providing impartial analysis and assistance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serving as a bridge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public. We take great pleasure in announcing the launch of the Asian PBO Network, a platform enabling Asian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other fiscal institutions to share valuable insights. The two-day forum aims to facilitate an in-depth discussion on developing the Asian PBO Network and enhancing the credibility of public finances.

Accommodations (for 3 days and 2 nights), meals, and local transportation will be covered by NABO to ensure that the trip is as comfortable as possible for you. If you have any questions concerning the forum,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or Ms. Haesook Yoon (yhs93630@nabo.go.kr).

We will notify you of the exact date of the event in due course, and we kindly request for your response regarding your attendance. We look forward to the pleasure of welcoming you to Seoul.

Yours sincerely,

Eunsup Cho
Chief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Republic of Korea

2 회의 리셉션 참석

가 개 요

- 일시 : 2022년 4월 12일(수) 17:00
- 장소 : 아이슬란드 대통령 관저
- 목적 : 회의 참석자 간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및 Ice Breaking
- 참석 대상 : 회의 참석자 전원

나 주요 내용

❑ 아이슬란드 대통령 연설

○ 아이슬란드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국가 설립 이후 경제위기를 포함한 다양한 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합심하여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국가임.

○ 현재 아이슬란드는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로 경기를 회복하고 있으며,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되어 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 상환 및 미래 연금부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 앞으로의 경제 방향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점인데, OECD 네트워크와 함께 고민해나갔으면 좋겠음.

❑ 이스라엘 PBO 국장 Ami Zadik

○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하였던 제10회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서울)에 참석하였을 때 매우 인상적이었고, 당시 회의를 통해 기관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언급함.

○ 한국과 이스라엘 모두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기로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함.

❑ 캐나다 온타리오주 PBO 처장 Peter Weltman

○ 국가 단위가 아닌 주(州) 단위에서 운영되는 온타리오 주 PBO (Financial Accountability Office)의 특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 질의함.

- FAO는 2013년 Financial Accountability Officer Ac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캐나다의 다른 주에서도 설립과 관련한 문의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Peter Weltman은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 PBO에서 근무하다가, 온타리오 주 PBO 처장을 맡게 되었다고 답변함.

❑ **영국 OBR Andy King**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되었다고 생각하며, 기후 대응과 관련한 연구들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전달하여 보다 다양한 그룹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함.

○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및 고령화 추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나눔.

❑ **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의 Tinatin Akhvlediani**

○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 주제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관심을 표하면서, 유럽권 국가들에서 많은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호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현함.

○ 아시아 PBO 네트워크 설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유럽 독립재정기구 간 교류 네트워크인 EUIFI의 운영 주체와 운영 현황에 관한 논의를 나눔.

3 제15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가 개 요

❑ 일시 : 2023년 4월 13일(목) - 14일(금)

❑ 장소 : 레이캬비크 Harpa

❑ 목적 : 각국 독립재정기구 운영 경험 및 현안 공유

세션별 agenda에 대한 각국의 현황 및 대응 방안 논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발표

나 회의 연혁 및 독립재정기구 현황

❑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목적 및 연혁

○ OECD는 독립재정기구가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상호 간 현안과 업무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2009년부터 매년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8년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주최

❑ 독립재정기구의 의미

○ 국가 재정정책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독립적인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OECD 31개 회원국에서 41개의 독립재정기구 운용 중

※ 의회 소속 기관(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외에 행정부 소속이더라도 재정정책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면 이에 해당

※ 41개 독립재정기구에는 지방기관 포함 (예시: 호주 빅토리아주 PBO)

❑ OECD 독립재정기구 현황

국가명	개수	국가명	개수	국가명	개수	국가명	개수
호주	2	에스토니아	1	아일랜드	2	포르투갈	2
오스트리아	2	EU	1	이탈리아	1	슬로바키아	1
벨기에	2	핀란드	2	**대한민국**	**1**	슬로베니아	1
브라질	1	프랑스	1	라트비아	1	스페인	1
캐나다	2	독일	1	리투아니아	1	스웨덴	1
칠레	1	그리스	2	룩셈부르크	1	영국	3
체코	1	헝가리	1	멕시코	1	미국	1
덴마크	1	아이슬란드	1	네덜란드	1	**합계**	**41**

※자료: OECD

다 주요 아젠다(Agenda)

❑ 제1주제 : 인플레이션과 재정 감독에 대한 도전 과제

- ○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의 위기, 인플레이션의 '재등장', 급변하고 불확실한 경제 전망으로 인해 적절한 재정 기조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
- ○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정책 대응을 모색하는 데 따르는 과제 관련 논의
- ○ 기관별로 인플레이션이 업무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정 감독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을 논의

❑ 제2주제 : 재정 지속가능성 회복

- ○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재정 대응의 결과로 부채가 증가하고 상당한 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등 공공 재정이 크게 악화
- ○ 동시에, 인구 고령화, 보건 의료, 사회 복지, 녹색 전환, 국방 지출, 높은 금리 등 다양하고 복잡한 지출 과제 존재
- ○ 재정 프레임워크 설계가 재정 지속가능성 회복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와 감독 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

❑ 제3주제 : 장기 보건의료 지출

- ○ 보건의료 지출에 대한 상승 압력은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작용
- ○ 이와 함께,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함께, 기술 및 혁신, 소득 효과 및 비용 압력도 보건의료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
- ○ 보건의료의 미래 트렌드와 보건의료가 공공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 제4주제 : 기후 변화와 공공 재정

- ○ 기후 및 환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가속화를 위한 예산 정책와 수단이 점점 더 많이 사용
- ○ 기후 변화와 공공 재정 사이에서 의회 예산 담당자와 IFI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봄
- ○ 예산 조치의 배출 영향 계산,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장기 추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 소개

❑ 제5주제 : OECD 의회 예산 모범 사례 - 실행

- ○ 의회가 예산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 감독을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 ○ 예산 과정에서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재정적 책임을 다하는 입법부를 장려하는 총체적인 접근에 관한 논의 및 사례 소개

❑ 제6주제 : 영향력 확보를 위한 운영 강화

-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IFI와 의회 예산 담당자들의 영향력 발휘에 필수적이나, 소규모 기관이나 전문 인력만으로 구성된 팀은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 기관이 일반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공유
-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 구축, 새로운 기능 조직화, 숙련된 직원 유치 및 유지에 대한 발표

❑ 제7주제 : OECD 사무국 보고 및 향후 업무 계획

- ○ 예산 및 공공지출에 관한 OECD의 현재 및 향후 업무 프로그램을 대표단에게 보고하고 대표단이 관심 있는 주제를 파악

라 주요 내용

1. 인플레이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기후 변화(1일차)

[세션 1: 인플레이션과 재정 감독에 관한 도전 과제]

❑ 발제 및 토론

<Rannveig Sigurðardóttir, 아이슬란드 중앙은행>

○ 아이슬란드 경제의 특성과 팬데믹 시기 아이슬란드의 경제의 추이를 소개함.

- 팬데믹 이전, 2019년도 기준으로 아이슬란드는 GDP 성장률이 OECD 평균보다 높고 실업률과 재정적자가 OECD 평균보다 낮은 비교적 건실한 경제를 유지함.
- 코로나19 시기 아이슬란드는 수출이 30% 가량 감소하였고, 관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로 OECD 내에서도 최상위권인 아이슬란드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음.
- 또한 글로벌 경기회복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는데, 세계적인 수요 팽창에 따라 아이슬란드에서도 초과 수요가 발생. 이와 함께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아이슬란드는 그나마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음.

○ 팬데믹 이후 아이슬란드 경기 회복의 양상과 아이슬란드 경제의 과제를 제시함.

- 세계적인 연료 가격과 교통비의 상승 등이 global value chain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방 압력이 발생함. 또한, 아이슬란드의 관광이 빠르게 회복되고 이민이 증가하면서, 아이슬란드의 인구 역시 연 2%대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 아이슬란드의 임금과 단위노동비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주택 가격 역시 가파른 상승 중임. 인플레이션의 본격화와 경기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임.
-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타게팅하여 안정화를 도모하되, 인플레이션이 사회 각 집단에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그룹을 찾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Geert Langenus, 벨기에 중앙은행>

○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낮은 이자율은 그간 부채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해왔으나, 장기적으로는 이자율 상승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인플레이션이 각국 대표단의 업무에 있어 가져온 도전 과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상호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짐.

[세션 2: 재정 지속가능성 회복]

❑ 발제 및 토론

<Martin Larch, 유럽 재정 위원회(European Fiscal Board)>

○ EU에서 재정준칙이 실제로 작동하였는지, 재정준칙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

- EU 국가들을 2011년~2019년 기간 동안의 GDP 대비 부채비율에 따라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low debt, high debt, very high debt)하여 각 그룹별 GDP 대비 부채비율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낮은 두 개의 그룹(low debt, high debt)의 경우 부채비율이 안정

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very high debt)에서는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발견

- 재정준칙의 준수율을 살펴보면, low debt 그룹일수록 재정준칙을 잘 준수하였음이 나타나는데, 재정준칙 준수도와 안정적인 부채비율 유지 간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유럽의 남부쪽보다는 북부쪽으로 갈수록 재정준칙 준수율이 높은 경향을 띔.

<Villa Lucie, 무디스>

○ 신용등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척도로, 단순히 부채가 많다고 디폴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21개로 구분된 지표(scale)을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 통화(foreign currency)와 현지 통화(local currency) 부채를 각각 살피고 있음.
- 디폴트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가령 은행업계의 위기, 경기 침체, 보고되지 않은 부채의 발생 등이 있을 수 있음. 주목할 점은 디폴트가 외국 통화로 된 부채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현지 통화 부채로 디폴트가 발생한 사례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임.
- 역사적으로 봤을 때, 디폴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운영상 또는 정치적인 요소들이며, 높은 부채 수준 그 자체는 디폴트의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아님.

○ 인플레이션 쇼크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인플레이션은 GDP 디플레이터를 부풀리고 이는 코로나19 기간 지출을 확대했음에도 GDP 대비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데 도움을 주었음.
- 다만, 전반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서 각국 정부는 기존 저금리 부채를 단계적으로(연도별로) 고금리 부채로 전환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향후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임.

<Miguel St Aubyn, 포르투갈 Public Finance Council>

○ 단일 통화를 도입한 EU에서, 특정한 국가의 재정정책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변동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반드시 필요함. 향후 재정준칙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촉구

○ '신용등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척도'라는 무디스의 발언에 깊이 공감하며, 이는 공공 부채 수준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는 독립재정기구(IFI)의 역할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

[세션 3: 장기 보건의료 지출]

❑ 발제 및 토론

<Eythor Benediksson · Anna Sigurborg Olafsdottir, 아이슬란드 의회>

○ 아이슬란드의 인구 구조를 소개

- 아이슬란드 인구는 약 40만명 가량이고,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약 15%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합계출산율은 약간 낮아진 1.8명으로 OECD 평균보다는 높은 편.
- 이민 증가로 인해 고령화가 늦춰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인구 피라미드 상태가 양호한 상황임. 2073년이 되면 인구는 약 46만 6,000명, 노인인구 비율은 15%에서 3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아이슬란드의 의료비 지출과 향후 의료 발전방향 논의

- 아이슬란드는 현재 3,200 USD 가량 지출 중으로, 향후 15년간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약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령화로 인해 의료 발달이 절실한데, 거의 모든 나라는 의료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AI 수요 매년 증가 중임. 또한 알고리즘과 예측 모델을 활용하고, 바이오테크 발달로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함.
- 의료 변화는 공공지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기술 발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에 있어 투입 대비 산출이 좋은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함.

<Julie Topoleski, 미국 CBO>

○ 미국의 의료비 지출 변화와 지출 구조 소개

- 1960년대부터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해, 당시 공공지출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던 의료비 지출은 이제 거의 1/2을 차지하고 있음. 의료비 증가분의 대부분은 메디케어(노인 건강보험)의 증가에 기인하며, 메디케이드의 영향은 적음.
- 공공재정에서의 의료비 지출은 지원금의 형태보다는 면세(조세 지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인구의 증가, 생활비 증가, GDP 증가는 의료비를 증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미국은 합계출산율이 약 1.8명이고 생활비도 높으며 향후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에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CBO에는 의료비 분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관이 약 50명 있는데, 향후 20년 간의 의료비 추이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분석 및 전망하고 있음.

[세션 4: 기후 변화와 공공 재정]

❑ 발제 및 토론

<Yves Giroux, 캐나다 PBO>

○ 기후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공유

- 캐나다 정부는 탄소세를 중기 경제 전망에 포함시키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임. 캐나다 PBOsms 2018년에 3개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탄소세 관련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에 기후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보고서를 발간. 학계는 이에 만족하지는 않고 있으나, 좋은 첫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생각함.

- 기후 변화에 따라 캐나다의 농업 생산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봄. 난방에는 적은 에너지가 들어가나 냉방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지고, 이상기후가 GDP 성장을 저해할 것임. 미래 기후 변화로 인해 캐나다 GDP가 2100년까지 GDP가 5.8% 감소(연간 0.08%)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다만, 기후 변화가 캐나다 경제 외에 전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망하기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비당파적이고 비편향적으로 이에 대한 추정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조의섭 처장, 국회예산정책처>

○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에 대한 소개

- 이상기후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됨.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많은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수립 중.
- 대한민국 또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여 UN에 제출하였으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발표하는 등 여러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탄소중립 이행수단 중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한

편,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임. 「국가재정법」은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의 작성지침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의 대상사업은 크게 정량, 정성, R&D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작성된 288개 사업은 정량사업 70개, 정성사업 62개, R&D 사업 156개로 구분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총 규모는 11.8조원으로, 정부 세출예산 규모인 638.7조원 기준으로 1.8%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8,516개 사업 대비 3.4%에 해당되는 규모임. 환경부 사업이 3.7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사업 수는 기획재정부가 가장 많은데,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조성한 ‘기후대응기금’을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임.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분석 제시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대상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에는 우선 투자를 하고, 감축효과가 낮은 사업은 사업 방식을 보완하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여야 하는데, 동 제도를 통해 재정사업 탄소배출량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실시하면 NDC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 다만 대상사업 분류의 오류(예시: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부적정한 계수 및 근거 지표의 사용과 같은 산정 방식의 오류(예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작성단위가 세부사업임에 따른 예산 과다계

상 문제(예시: 중기부 신성장기반자금), 온실가스 감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사업 진행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사업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 등이 있음.

- 이를 고려하여,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①지속적인 평가방법론의 개선, ②내역사업 단위의 현황 파악을 통한 추계 합리성 제고, ③온실가스 감축을 저해하는 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영향 분석 등을 제시함.

2. 우수사례 공유 및 외부 홍보전략(2일차)

[세션 5: OECD 의회 예산의 우수사례]

❑ 발제 및 토론

<Natasha Stroeker, Jeannette Mak, 네덜란드 Analysis and Research Department>

○ Analysis and Research department의 소개와 업무 양상 소개

- Analysis and Research Department(DAO)는 현재 약 6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식 총괄(knowledge coordinators) 30명, 정보 전문가(information specialists) 25명, EU 자문가(EU advisors) 8명, 그리고 법제 분석가(legislative analysts) 5명임. 이 중 법제 분석가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지식 총괄들은 상임위를 위해 일하는데, 각 상임위에는 최소 1명의 지식 총괄들이 있어 이들이 예산 과정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함.

- DAO는 라운드테이블, 공청회, v-100(100의 시민이 예산에 관해 논의)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8명~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월 1회씩 가동하여 특정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예산 관련 문서를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정보 과잉을 방지하며, 의원과 시민 사회의 예산 과정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를 위해 의원들에게 예산과 관련한 책을 배포하고, 예산안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임.

<Helmut Berger, 오스트리아 PBO>

○ 오스트리아 의회의 세 가지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는데, ①예산위원회 소속의 분과위원회 설치, ②예산안의 시각화, ③장기 재정 전망에 있어서의 기후 예측 포함임.

- 먼저 오스트리아 의회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관련한 분과위원회를 예산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였음. 이를 통해 비교적 적은 수의 의원들이 사업의 성과와 예산 배분이 적절히 매치되었는지에 관해 보다 밀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음. 성과 관련 정보가 너무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하게 되면 오히려 정부의 성과를 추적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게 됨.
- 또한 예산안의 시각화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PBO는 예산안에 제시된 세입과 세출을 분야별·기관별로 시각화하고, 연도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예산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밝혔음.
- 마지막으로 재정 전망과 기후 예측과 관련하여, 현재 오스트리아 재정부는 30년에 걸친 전망을 매 3년마다 내놓고 있음. 그러나 이런 예측들은 보통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수단을 마련하고 공공 투자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 전망을 할 필요가 있음.

  이를 고려하여 추산해볼 경우, 2050년 기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3.3%로 기후 관련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비율 99.6%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량 감소 시의 세입 감소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수치로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된 각종 세입이 감소하더라도 다른 세입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Nazare da Costa Cabral, 포르투갈 Public Finance Council>

○ 예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을 소개
- 장기에 걸친 리스크가 과소평가되고(정치적인 기회주의와 관련), 다년도에 걸친 지출의 상한선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예산의 상한액 등에 관한 분석이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거나 다양한 정치적 영향을 받는 사례, 예산안의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사례 등이 발생 가능

○ CFP의 설립과 의회와의 교류를 소개
- CFP는 “Budgetary Framework Law”에 따라 2011년 설립된 포르투갈 독립재정기구임.
- CFP는 예산안 관련 공청회나 특정 이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릴 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공공재정과 관련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법안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세션 6: 영향력 확보를 위한 운영 강화]

❑ 발제 및 토론

<Peter Weltman, Jessica Martin, 캐나다 온타리오 주 PBO>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략 제안
- 먼저 관심을 가질만한 그룹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기관 인지도를 제고한 뒤, 보도자료 배포나 이슈 브리핑 등을 통해 기

관 평간을 관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의 가독성을 높여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위험도, 청중 등을 고려 시 SNS 중에서는 트위터와 링크드인, 인스타그램을 선택하였고(페이스북·유튜브 X), 기관 로고 개편 등을 통해 현대화를 추구하였음. 보도자료 작성은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내용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슈 브리핑은 주제에 대해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줌.
- 이러한 결과, 비교적 신생 기관(2015년 설립)으로서 아직 취약점이 많은 상태임에도 트위터,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Stephen Bartos, 호주 New South Wales 주 PBO>

○ 한시조직으로서의 독특한 성격을 소개

- NSW 주의 선거는 4년마다 3월에 치러지는데, 선거가 열리기 전 해 9월 PBO 처장이 임명되고 직원들을 꾸리게 됨. 공약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대한 비용을 추산하는 역할을 맡으며, 선거가 끝나면 해산하여 다음 선거 전 해에 다시 출범하게 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님.

○ 경험을 통해 본 적절한 인력 채용 방식 제시

- 9월에 2명으로 시작하여, 1월·2월에 최대 19명까지 늘어난 후 3월이 지나면 해산하는 기관의 특성 상, 빠른 인력 확보를 통해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광고를 통한 모집은 소수의 지원자만이 관심을 가져온만큼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검증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었음. 재무부 또는 감사원 출신 등이 많은 도움이 되어 왔고, 다만 경제·회계 분야 전문가와 정책 전문가를 적절히 조화롭게 채용하는 것이 핵심임.

[세션 7: OECD 사무국 보고 및 향후 계획]

❑ 발제 및 토론

<Jon Blondal, OECD>

○ OECD 고위 예산 관료(Senior Budget Officials) 네트워크 구상 제시

- 공공재정과 관련한 OECD Senior Budget Officials 네트워크로서, 금번 회의가 개최된 독립재정기구 네트워크 외에 금융 관리 및 보고 네트워크(금융보고서, 재무보고서, 회계기준 담당), 성과 및 결과 네트워크(지출 담당) 등이 있음.
- 또한, 특정한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 네트워크로서 녹색예산 네트워크, 성인지 예산 네트워크, 의료보건체계의 재정 지속가능성 네트워크가 있으며, 지역별 네트워크로서 비OECD까지 포함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음.
-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①위원회 자문 및 모범사례를 회원국 간 공유하는 업무, ②가이드라인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업무, ③기관·의회 리뷰 및 설치 지원 업무, ④국제회의 업무, ⑤통계와 데이터 및 지수 측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마 Agenda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OV/SBO/A(2023)2

For Official Use

English - Or. English
20 March 2023

PUBLIC GOVERNANCE DIRECTORATE
COMMITTEE OF SENIOR BUDGET OFFICIALS

15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Working Party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Annotated Agenda

13-14 April 2023
Reykjavik, Iceland

The meeting is being kindly hosted by the Icelandic Parliament (Alþingi).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Scherie.NICOL@oecd.org

JT03514646

This document, as well as any data and map included herein,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status of or sovereignty over any territory, to the delimitation of international frontiers and boundaries and to the name of any territory, city or area.

Wednesday, 12 April 2023

16:30 – 19:30

Welcome Reception by President of Iceland

Thursday, 13 April 2023

9:00 – 9:15

Arrival and registration

9:15 – 9:30

Opening Remarks

- **Mr. Mark Hadley**, Chief Operating Officer, Congressional Budget Office, United States (Chair)
- **Mr. Birgir Ármannsson**, Speaker, Icelandic Parliament (Alþingi), Iceland
- **Mr. Jón R. Blöndal**, Head of Public Management and Budgeting Division, OECD

Delegates' Introductions

9:30 – 11:00

Session 1: Inflation and its challenges for fiscal oversight

Assessing the appropriate fiscal stance has been inherently challenging in recent years with multiple crisis, the "re-emergence" of inflation and an overall fast changing and uncertain economic outlook. The session will feature a keynote address on how inflation is impacting the economy and examine challenges associated with finding the right policy responses. Delegates will be then able to share their experiences on how inflation is impacting their work and discuss the best ways of ensuring effective fiscal oversight under these circumstances.

Keynote presentation

- **Ms. Rannveig Sigurðardóttir**, Deputy Governor, Central Bank of Iceland

Discussants

- **Mr. Geert Langenus**, Macroeconomist, National Bank of Belgium, Belgium
- **Mr. Jan Toth**, Chairman of the Council for Budget Responsibility, Slovak Republic

11:00 – 11:30 *Coffee break*

11:30 – 13:00

Session 2: Restoring fiscal sustainability

Public finances have deteriorat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especially as the result of the fiscal response to the Covid-19 and energy crises, with higher debt and in many cases sizeable underlying deficits. At the same time, multiple and compelling spending challenges lie ahead. Ageing populations. Health care. Social care. Green transition. Defence expenditure. Higher interest rates. Restor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finances and reducing debt to more prudent levels is increasingly challenging. This session will discuss how the design of fiscal frameworks can help in restoring fiscal sustainability and the role of oversight institutions. It also looks at what might be learnt from ratings agencies in their assessment of debt sustainability.

Presenters

- **Ms. Lucie Villa**, Vice-President, Sovereign Risk Group, Moody's
- **Mr. Martin Larch**, Head of Secretariat of the European Fiscal Board, European Commission

Discussant

- **Mr. Miguel St Aubyn**, Executive Member of the Senior Board, Portuguese Public Finance Council, Portugal

13:00 – 14:30 *Luncheon*

14:30 – 15:30

Session 3: Long-term health expenditure

Upward pressure on health care spending i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to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In seeking to understand long-term fiscal pressures, parliaments and IFIs need to understand trends relating to health. While demographic change contributes to some of the increases in health spending, technology and innovation, income effects and cost pressures are also major factors. This session will discuss future trends in health and their implications for public expenditures.

Presenters

- **Ms. Julie Topoleski**, Director of Long-Term Analysi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United States
- **Mr. Eythor Benediksson**, Economist and **Ms. Anna Sigurborg Olafsdottir**, Futurist, both Department of Budget and Analysis, Icelandic Parliament (Alþingi), Iceland

15:30-16:00 *Coffee break*

16:00 – 17:00

Session 4: Climate change and public finances

Budgetary frameworks and instruments are increasingly being used to support and accelerate progress towards climate and environmental goals. This session looks at the roles that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FIs are forging in the nexus between climate change and public finances.

The session will showcase specific examples from the Working Party in this regard, including the calculation of the emissions impact of budget measures and estimating the long-term economic impact of climate change.

Presenters

- **Mr. Yves Giroux**,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Office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Canada
- **Mr. Euysup Cho**, Chief,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Korea

19:00 **Gala Dinner**

Speaker: **Mr. Richard Hughes**

"United Kingdom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Lessons from the Past Year"

Friday, 14 April 2023

9:30 – 11:00

Session 5: OECD Best Practices for Parliaments in Budgeting – implementation

The *OECD Best Practices for Parliaments in Budgeting* outline ways in which budget oversight can be organised to give parliaments an effective and responsible role in the budget process.

The *Best Practices* cover aspects such as the scope of legislative oversight, the comprehensiveness of budget documentation, amendment powers, the time available to scrutinise the budget, committee organisation, analytical capacity and citizen participation. They are holistic, providing guidance for legislative engagement across the full budget cycle, and promoting legislatures that are both empowered in the budget process and fiscally responsible.

This session will highlight specific examples of their implementation in practice across OECD countries.

Presenters

- **Ms. Jeannette Mak**, Budgetary Adviser, **Ms. Natasha Stroeker**, Standing Committees on Finance and Public Expenditures, Netherlands House of Representatives, Netherlands
- **Mr. Helmut Berger**, Head, Parliamentary Budget Office, Austria
- **Ms. Nazaré da Costa Cabral**, Chair of the Senior Board, Portuguese Public Finance Council, Portugal

The floor will then be opened for other delegates to share examples of good practices in parliamentary budget oversight.

11:00 – 11:30 *Coffee break*

11:30 – 13:00

Session 6: Strengthening operations to help achieve impact

Effective communications are key to IFIs and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chieving impact. However, they are typically organised as small institutions or teams with specialist staff, not always adept on how to

best communicate their work. They are also increasingly being asked to undertake new tasks. This can give rise to challenges in relation to recruiting and retaining a workforce with the right skills. This session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share practices to overcome these common institutional challenges and help ensure operational success.

The session will include lead presentations on establishing an effective communications function, organising for new functions, and attracting and retaining skilled staff.

Presenters

- **Communications: Mr. Peter Weltman**, Financial Accountability Officer, and **Ms. Jessica Martin**, Communications Manager, Financial Accountability Office of Ontario, Canada
- **New functions: Mr. Stephen Bartos**,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New South Wales, Australia
- **Recruitment: Ms. Ragna Árnadóttir**, Secretary General, Icelandic Parliament (Alþingi), Iceland (TBC)

13:00 – 14:30	*Luncheon*

14:30 – 15:00

Session 8: Report by the OECD Secretariat and Future Work

This Session updates Delegates on the OECD's current and future work programme on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The session provides an opportunity for Delegates to identify priority topics of interest.

Presenter

- **Mr. Jón Blöndal**, Head, Public Management and Budgeting Division, 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OECD

15:00

Closing by Co-Chairs and OECD Secretariat

Collaboration Time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meeting, the facilities will remain accessible for Delegates to organise further bi-lateral meetings. The Secretariat is available to facilitate such engagement.

별첨 회의 발표 자료

Korea's GHG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and NABO's Review

Euysup CHO
Chief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ontents

1. Overview of the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System
   (1) Context and Background
   (2) Definition and Legal Basis
   (3) Requirements and Target Project Subjects
   (4) 2023 GHG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2. NABO's Review
   (1) Significance of the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System
   (2) NABO's Review
3. Conclusion: Policy Suggestions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1) Context and Background

-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is a new global paradigm.
- National policies and financial management mechanisms are required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 As th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in 2015, countrie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GHG reduction targets.
  - Korea registered its 2030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NDC) in June 2015.
  - Korea announced the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in October 2020.
  - Korea created relevant legal bases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Amended the National Finance Act)

4

(2) Definition and Legal Basis

❖ Definition

- A system that analyses the impact of national budgets and funds on GHG reduction to allocate budgets accordingly and evaluates the budget execution to reflect the results in the next year's budget.

❖ Legal Basis

Article 27 of the National Finance Act (Preparing GHG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①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a report on analysis conducted in advance of the impact that the budget is likely to have on GHG reduction.
② The GHG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shall include the expected effects of GHG reduction, performance objectives, and effect analysis.
③ Detailed Matters concerning the preparation of the GHG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3) Requirements for Submission

❖ The GHG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is attached to the national budge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 The budget must include ① expected effect, ② performance objectives, and ③ reduction effect analysis.
→ The budget must be submitted by no later than 120 days before the pertinent fiscal year.

※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nvironment, presents the budget preparation standards, includi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project subjects.

→ The 2023 Guidelines for Creating a Greenhouse Gas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were developed.

6

(3) Target Project Subjects

❖ The target projects for GHG reduction recognition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R&D**.

① **Quantitative projects**: those that can quantify emission reduction using international emission factors and in-house factors.

② **Qualitative projects**: those that conduct unquantifiable activities (system development, financial support, awareness-raising projects, etc.)

③ **R&D projects**: qualitative projects that develop technologies

7

(3) Target Project Subjects

❖ 288 projects in total: 70 quantitative, 62 qualitative, and 156 R&D projects

< Budget by target project type >

(Unit: KRW 100 mil.)

Facility purpose	2023 Budget	No. of projects	Project examples
Total	117,839	288	
Quantitative	61,581	70	• Supports for GHG reduction facilities • Subsidies for eco-friendly car purchases
Qualitative	38,582	62	• Financial supports for companies transiting to low-carbon industry
R&D	17,676	156	•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for renewable energy • Advancement of carbon capture technology

8

(4) The 2023 GHG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 KRW 11.784 trillion for 13 ministries and 288 projects
- 1.8% of the 2023 expenditures(KRW 638.7 trillion) and 3.4% of the 8,516 detailed projects.
  -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projects account for the largest share(KRW 3.747 trillion)

<% of GHG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to expenditures>

(Unit: KRW tril.)

Facility purpose	2023 Budget	No. of projects
Budget expenditures (A)	638.7	8,516
GHG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B)	11.8	288
Percentage (B/A)	1.8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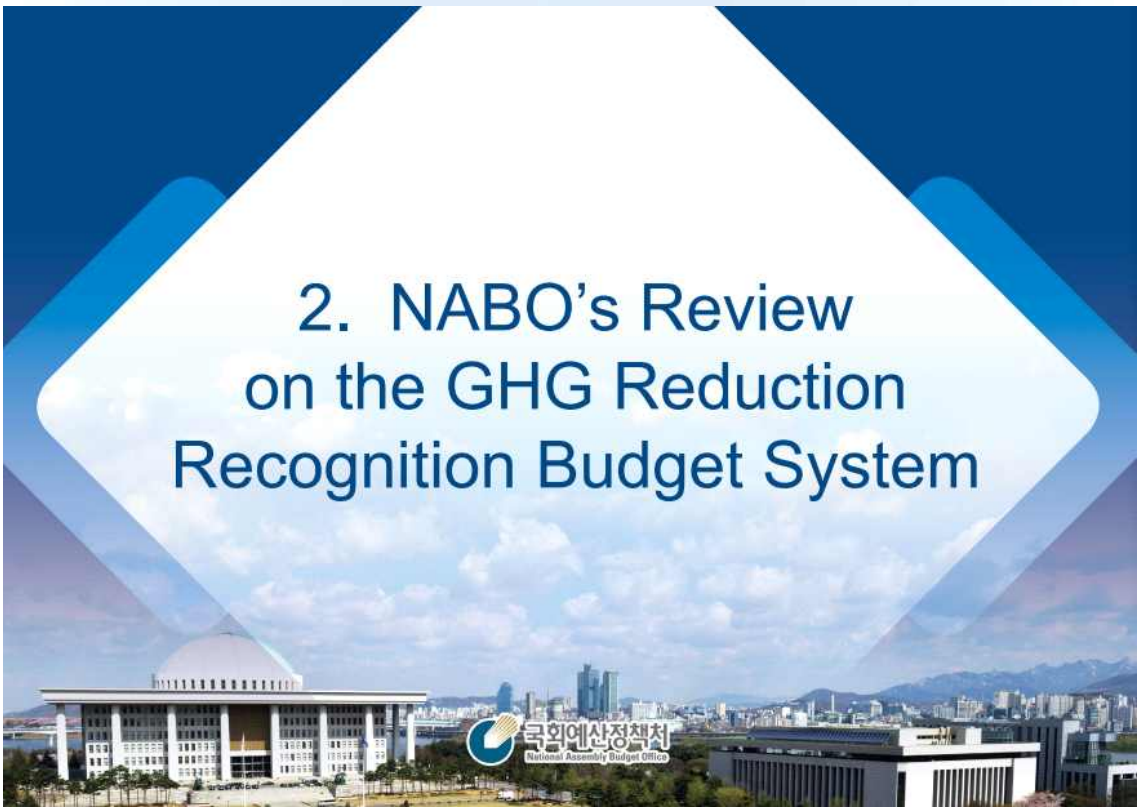
< Budget allocation for Ministries>

(Unit: KRW 100 mil.)

Facility purpose	2023 Budget	No. of projects
Total	117,839	288
Environment	37,474	20
Economy & Finance	24,021	148
Trade, Industry & Energy	22,897	68
SMEs & Startups	19,011	3
Oceans & Fisheries	4,631	22

Note: Only the top five ministries are listed.

9



(1) The Significance of the GHG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System

❖ Effective tool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 Korea updated and enhanced its NDC to reduce emissions by 40% from 2018 (submitted to the UNFCCC, Dec. 2021).
- The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system analyzes whether the spending programs have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to reduce GHG emissions
  → Continuous management of the project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reducing emissions and achieving the NDC.

* Inspection of reduction targets and performance by project → Projects that significantly reduced emissions will be prioritized for investments, and other projects will be complemented.

11

(2) NABO's Review of the System

① Improper classification of target projects

- The projects were similar in that they supported the installation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but were not classified as the same type of projects.
  e.g.) the Ministry of Education: qualitative project,
  the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Energy: quantitative project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roject name	Green Smart School Project	Renewable Energy Expansion Project
Description	Support for the installation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Targets	Underdeveloped schools	Municipal-owned buildings
Project type	Qualitative	Quantitative

12

(2) NABO's Review of the System

② Errors in calculation methods

- Inappropriate basic factors for calculating reduction effects

e.g.)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s Renewable Energy Supply Program

- Supports the installation of self-supply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houses and buildings

Facility purpose	Utilization rate	Project target?	Note
Self-consumption	13.5%	O	Appropriate factor
Commercial generation	12.6%	X	
Self-consumption + Commercial generation	12.7%	X	Currently used factor

13

(2) NABO's Review of the System

③ Over-appropriation of the GHG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 The basic unit for the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is a detailed project, which may consist of several "subprojects."
- When only part of the subprojects are target projects, the detailed project is classified as the target project.

e.g.)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New Growth Foundation Fund"
(Detailed project; KRW 1.489 trillion)

→ It consists of 4 subprojects, BUT only one of the subprojects (KRW 46.2 billion) is an emission reduction project.

- When recalculating the size of the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with actual reduction projects, about KRW 1.97 trillion is reduced from the original figure.

(Original government calculation: KRW 11.883 trillion → Recalculated: KRW 9.913 trillion)

14

(2) NABO's Review of the System

④ Limited scope of target projects of the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 The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proposal is based on projects that positively impacts reductions (+).

- Projects with negative(-) or mixed impact on reductions are not included.
- When calculating the reduction effect, the GHG emissions during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are NOT considered.
  After a project is finished and when the reduction effect is observed, then the calculation of the effect starts.

(Note) France's Green Budgeting analyzes all budget expenditures:
favorable, neutral, and unfavorable (does not calculate the amount of reduction)

☞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managing projects with a negative or a mixed impact on GHG reductions in the medium to long term.

15

Conclusion: Policy Suggestions

- To secure the credibility of the system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the government must advance the methodology for calculating reduction effects and improve the evaluation capacities of fiscal authorities.
- Improve the rationality of estimating the size of the GHG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by identifying it based on the reduction-contributing projects
- Broaden the scope of the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to include not only projects with positive (+) effects but also with negative (-) effects on GHG reductions

4 아이슬란드 의회 및 의회 최초 설립지 방문

가 개 요

- 일시 : 2023년 4월 14일(금) 16:00 및 15일(토) 10:00
- 장소 : Alþingi 및 Þingvellir
- 목적 : 의회 설립의 연혁과 의회 운영 방식에 관한 현황 파악
- 참석 대상 : 회의 참석자 전원(OECD 및 아이슬란드 의회 제공)

나 주요 내용

❑ 아이슬란드 의회의 연혁

○ 아이슬란드 의회(Alþingi)는 930년에 최초로 설립

- 무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의회로서, 세계에서 가장 일찍 의회가 설립된 국가에 해당함.

○ 최초 설립지는 þingvellir 지역으로, 19세기에 들어서야 레이캬비크 내로 이동함.

- þingvellir 지역에 모여 다함께 토의하는 문화가 발전하여 의회 설립의 바탕이 되었음. “þing”은 “assembly”를 의미하는 아이슬란드어로서, 아이슬란드 의회가 최초로 설립된 지역 “þingvellir”는 “assembly field”라는 뜻을 가지며 현재는 국립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음.

❑ 아이슬란드 의회의 운영 방식

○ 아이슬란드 의회 의원 정수는 63명으로, 상원·하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다가 1991년부터 통합하여 운영 중임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 당은 독립당(Independence party), 진보당(Progressive Party), Left-Green 운동당(Left-Green Movement)으로 세 당이 협력하여 의회를 운영 중

○ 전자투·개표 방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회의장 외에 다양한 비공식 회의장소 및 접견 공간을 마련하여 의원들 간 및 의원-시민 간의 토의를 촉진하고 있음.

❑ 남아공 PBO 처장 Dumisani Jantjies와의 교류

○ 아프리카 국가 PBO 간에는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으로 (AN-PBO), 해당 네트워크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남아공 PBO 처장으로서 아시아 PBO 네트워크의 원활한 구축과 향후 운영을 위해 10월 개최 예정인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지난 날의 경험을 공유해줄 것을 부탁

○ 이에 대해 국제포럼에 참가하여 AN-PBO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공유하겠으며, 이외에도 남아공 PBO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해나가자는 답변을 함.

❑ 헝가리 Fiscal Council의 Daniel Csomos와의 교류

○ 탄소세를 비롯한 다양한 기후 대응 관련 제도에 관해 상호 간 의견을 교환하고, 헝가리·한국의 경제 상황 및 재정정책 기조와 당면한 도전 과제에 관해 논의함.

[별첨 자료]

별첨 1 제15회 OECD 회의 참석국가/참가자 명단

Participants List for 15th Annual Meeting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Liste des Participants pour 15ème Réunion Annuelle annuelle du Groupe de travail des Responsables Budgétaires des Parlements et des Institutions Budgétaires Indépendantes
Reykjavik, Iceland
13/04/2023 - 14/04/2023

Australia/Australie

Stephen BARTOS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Parliament of New South Wales
Anthony CLOSE	Chief Executive Parliamentary Budget Office of Victoria

Austria/Autriche

Helmut BERGER	Head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arliamentary Budget Office, Administration of the Austrian Parliament

Belgium/Belgique

Geert LANGENUS	Macroeconomist National Bank of Belgium
Igor LEBRUN	Head of the General Directorate Federal Planning Bureau

Canada/Canada

Yves GIROUX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arliament of Canada
Jessica MARTIN	Communications Manager Financial Accountability Office of Ontario
Peter WELTMAN	Financial Accountability Officer Financial Accountability Office of Ontario

Czech Republic/République tchèque

Tereza DLOUHA	Analyst Czech Fiscal Council
Klara JANKOVSKA	Consultant Chamber of Deputies of the Czech Republic Parliament

1/7 03:04 26/04/2023

Denmark/Danemark

Birgitte LANGE	Economist Danish Parliament
Kathrine LANGE	Senior Advisor Danish Parliament

Estonia/Estonie

Andrus ALBER	Vice-Chair Fiscal Council of Estonia

Finland/Finlande

Anni Huhtala	Secretary General Finnish Economic Policy Council
Mika RAJALA	Economist Parliament of Finland
Mika SAINIO	Principal Fiscal Policy Auditor National Audit Office of Finland (NAO)

France/France

Raphaelle ELOY	Rapporteur général adjoint Haut Conseil des Finances Publiques

Germany/Allemagne

Bjoern WOLF	Desk Officer German Parliament

Greece/Grèce

Christos SCHOINAS	Fiscal Policy Analyst Hellenic Fiscal Council

Hungary/Hongrie

Daniel CSOMOS	Head of Secretariat Fiscal Council of Hungary
Arpad KOVACS	Chairman Fiscal Council of Hungary

Iceland/Islande

Birgir Ármannsson	Member of Parliament Althingi - Parliament of Iceland

Eythor BENEDIKTSSON	Senior Economist Parliament of Iceland
Gunnar HARALDSSON	Chairman Icelandic Fiscal Council
Olafur HJALMARSSON	Director Fiscal Council of Iceland
Jon MAGNUSSON	Head of Department Parliament of Iceland
Anna Sigurborg Olafsdottir	Futurist Parliament of Iceland
Rannveig Sigurðardóttir	Deputy Governor Central Bank of Iceland
Olafur Elfar SIGURDSSON	Secretary of the Budget comittee Alpingi, Icelandic Parliament
	Ireland/Irlande
Jacopo BEDOGNI	Head of costings and modelling Houses of the Oireachtas
Eddie CASEY	Chief Economist Irish Fiscal Advisory Council
Annette CONNOLLY	Director Houses of the Oireachtas
Kieran Tuohy	Assistant Principal Houses of the Oireachtas
	Israel/Israël
Ami ZADIK	Director of Budgetary Control Department The Israeli Parliament
	Japan/Japon
Youhei NIMORI	Reseacher Research Office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Budget Secretariat of the House of Councillors National Diet
Natsuki OISHI	Researcher Research Office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Budget Secretariat of the House of Councillors National Diet
	Korea/Corée
Euysup CHO	Chief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Sangjun LEE	Head of Planning and Budget Division Korea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Haesook YOON	International Coordinator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Latvia/Lettonie

Normunds MALNACS	Council Secretary Fiscal Discipline Council
Inna STEINBUKA	Chairwoman of the Council Fiscal Discpiline Council of Latvia

Lithuania/Lituanie

Rasa IBELHAUPTAITE	Principal Economist National Audit Office
Mindaugas MACIJAUSKAS	Auditor General National Audit Office of Lithuania
Jaroslav MECKOVSKI	Principal Economist National Audit Office of Lithuania

Luxembourg/Luxembourg

Pit FEDERSPIEL	Economist Conseil national des finances publiques (CNFP)

Netherlands/Pays-Bas

Luka BASTIAANS	Senior Economist Council of State
Jeannette MAK	Advisor to the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House of Representatives
Suzanne MEIJER	Economist Council of State
Natasha STROEKER	Team Leader Dutch Parliament
Richard VAN ZWOL	State Councillor Council of State

Poland/Pologne

Przemyslaw SOBOLEWSKI	Director of the Bureau of Research Polish Parliament (Sejm)
Zofia SZPRINGER	Chief of Bureau of Social and Economic Analyse Bureau of Research Chancellery of the SEJM

Portugal/Portugal

Rui Nuno BALEIRAS	Head Portuguese Parliamentary Budget Office
Nazaré CABRAL	Chair Portuguese Public Finance Council Portuguese Public Finance Council (CFP)
Miguel ST AUBYN	Executive Member of the Senior Board Portuguese Public Finance Council

Slovak Republic/République slovaque

Martin SUSTER	Member of the Council Council for Budget Responsibility
Jan TÓTH	Chairman Council for Budget Responsibility (RRZ) (CBR)

Slovenia/Slovénie

Tomaz PERSE	Council Member Fiscal Council

Spain/Espagne

Carmen GUTIERREZ	Head of Section, Public Finances and Economic Research Chamber of Deputies
Andrés MARTINEZ GONZALEZ	Analyst AIReF

Türkiye/Türkiye

Mursel Kaan GULUM	Deputy Head of Budget Department Grand National Assembly of Türkiye
Yuksel KARADENIZ	Head of Budget Office Grand National Assembly of Türkiye
Mehmet Ali MEYDANLI	Deputy Head of Budget Department Grand National Assembly of Türkiye
Ilhan YAMAN	Legislative Expert Grand National Assembly of Türkiye

United Kingdom/Royaume-Uni

Allan Campbell	Head of Financial Scrutiny Unit Scottish Parliament Information Centre
Robert CHOTE	Chairman Northern Ireland Fiscal Council

Michael DAVIDSON	Head of Social Security and Public Funding Scottish Fiscal Commission
Mark DEMBOWICZ	Head of Strategy, Operations and Communications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Nicola HUDSON	Senior Researcher Scottish Parliament Information Centre
Richard HUGHES	Chairman Office for Budget Responsability
Martin JENNINGS	Head Financial Scrutiny Unit Welsh Parliament
Rachel KEYES	Research Officer Northern Ireland Assembly
Andy KING	Member of the Budget Responsibility Committe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Alex KNIGHT	Senior Economist House of Parliament
Jonathan MCADAMS	Chief of Staff Northern Ireland Fiscal Council
Louise MCNAIR	Finance Specialist House of Commons
Christopher ROTHWELL	Research Officer Northern Ireland Assembly

United States/États-Unis

Mark HADLEY	Chief Operating Officer Congressional Budget Office
Julie TOPOLESKI	Director of Labor, Income Security, and Long-Term Analysi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EU/UE

Martin LARCH	Head of Secretariat European Fiscal Board
Tinatin AKHVLEDIANI	Head of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Unit 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
Ellina DANAI	Permanent Secretary Network of EU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Laszlo JANKOVICS	Fiscal Economist European Commission
Beatriz POZO PEREZ	Research Assistant Network of EU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Brazil/Brésil

Emanuel SEBAG	Second Secretary Brazilian Embassy
Rafael BACCIOTTI	Analyst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
Vilma PINTO	Director Brazilian Federal Senate

South Africa/Afrique du Sud

Dumisani JANTJIES	Head of the PBO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Bulgaria/Bulgarie

Lyubomir DATZOV	Member Bulgarian Fiscal Council
James JOLOVSKI	Chief Expert Bulgarian Fiscal Council

Peru/Pérou

Juan Carlos SOSA	Director of the Macrofiscal Studies Directorate Fiscal Council of Peru

Romania/Roumanie

Georgiana Camelia GEORGESCU	Member Fiscal Council

OECD/OCDE

Jon BLONDAL	Head of Division OECD
Deborah MERRAN	SBO Committee Secretary OECD
Scherie NICOL	Policy Analyst Public Governance Directorate

Company Name/Nom de la société

Lucie VILLA	VP Senior Creditor Officer Moody's France

별첨 2 아이슬란드 현안 자료

1. 개 관

가 약 황

❑ 국 명 : 아이슬란드(Iceland)

❑ 수 도 : 레이캬비크(13.3만명, 2021년 기준)

❑ 인구 : 약 37.3만명(2021년 기준, 유엔)

- 인구밀도 약 3명/㎢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 면적 : 10.3만㎢ (한반도의 1/2)

- 국토의 약 79%가 빙하, 호수, 용암지대 등으로 구성

❑ 인종 : 아이슬란드인(93%), 이민자(7%)

❑ 언어 : 아이슬란드어

❑ 종교 : 루터교(81%), 레이캬비크자유교회(2.1%), 카톨릭(2%)

❑ 독립 : 1944.6.17 덴마크로부터 독립

❑ 정부 형태 : 내각책임제

❑ 의회구성 (총63석, '21.9월 총선 실시)

- 연정 : 독립당(17석), 진보당(13석), 좌파녹색당(8석)
- 야당 : 사회민주연합(6석), 민중당(6석), 해적당(6석), 개혁당(5석), 중앙당(2석)

❑ 주요 경제지표 (2021년 기준, 세계은행)

- GDP : 256억불
- 1인당 GDP: 68,730불
- 실업률 : 5.4%
- 수출 : 97.8억불
- 수입 : 102.4억불

나 정치 체제

❑ 대통령

ㅇ 현 대통령(제6대) : Guðni Thorlacius Jóhannesson
(2020.8.1. 취임, 2016년 첫 당선 후 2020년 재선)

※ 역대 대통령

- 초대 : Sveinn Bjornsson (1944-1952)
- 2대 : Asgeir Asgeirsson (1952-1968)
- 3대 : Kristjan Eldjarn (1968-1980)
- 4대 : Vigdis Finnbogadottir (여, 1980-1996)
- 5대 : Olafur Ragnar Grimsson (1996-2016)

ㅇ 선출 및 해임

- 직선제(4년, 연임 가능) * 임기제한 없음

※ 경쟁자가 없을 경우 선거 없이 의회 확인 형식으로 선임(피선거권 : 35세)

- 헌법 제11조에 따라 국회의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결의안이 채택되고,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는 경우 해임 가능

- 해임결의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는 경우 의회는 해산되고, 총선 실시

※ 1944년 아이슬란드 공화국 수립 이래 해임 사례 없음

ㅇ 권 한

- △국무회의 주재권, △각료 임명 및 해임권, △법률안 서명 및 거부권, △의회 소집 및 해산권 등의 권한이 헌법상 부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상징적 수준에서 권한 행사

- 대통령 유고시에는 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3인이 공동으로 권한대행 (헌법 제8조, 의견 경합시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

❑ 내 각

ㅇ 실질적 행정권은 내각과 총리가 행사

-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각료는 의회에 의해 탄핵 가능
- 현 총리 : Katrin Jakobsdottir (2017.11월 취임, 좌파녹색당 대표)

< 행정부 현황 (2022.12월 현재) >

부처	장관
재정경제부	Mr. Bjarni Benediktsson (독립당 대표, 2017년 총리 역임)
외교부	Ms. Thordis Kolbrun Reykfjord Gylfadóttir (독립당)
인프라부	Mr. Sigurður Ingi Johannsson (진보당 대표)
수산농업부	Ms. Svandis Svavarsdóttir (좌파녹색당)
환경에너지기후부	Mr. Gudlaugur Thor Thordarson (독립당)
통상문화부	Ms. Lilja Alfreðsdóttir (진보당)
교육아동부	Mr. Asmundur Einar Daðason (진보당)
사회노동부	Mr. Guðmundur Ingi Guðbrandsson (좌파녹색당)
과학혁신부	Ms. Aslaug Arna Sigurbjornsdóttir (독립당)
법무부	Mr. Jon Gunnarsson (독립당)
보건부	Mr. Willum Þór Þorsson (진보당)

❑ 의 회(Althingi)

ㅇ 구 성(단원제, 63석)

- 930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 1991년 이전에는 상/하원으로 구분, 운영되었으나, 이후 단원제로 전환

- 비례대표제(정당명부식) 4년 임기로 보통선거 방식으로 선출(선거연령 : 18세)

- 6개 선거구에서 각 8-13명을 선출, 총 63명의 의원으로 의회 구성

- 2021.9월 총선으로 구성된 현 의회의 경우, 약 48%(30석)가 여성의원

- 의회는 대통령에 의해 해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산일 기준 45일 이내 선거를 실시하고 10주 이내 의회 재구성 필요 (헌법 제24조)

- 의회에서 헌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회는 자동 해산되고 새 선거가 실시되며, 동 개정안은 새로운 의회에서 승인 후 대통령에 의해 재가 되어야 발효 (헌법 제79조)

< 아이슬란드 의회(Althingi) 의석분포(2022.12월 현재) >

정 당 명	의석수	비 고	
독립당(IP)	17	1929년 창당, 우파	연립 여당
진보당(PP)	13	1916년 창당, 중도(농민 지지 기반)	
좌파녹색당(LGP)	8	1999년 창당, 좌파	
사회민주연합당(SDA)	6	2000년 좌파 4개당 연합으로 결성	야당
민중당(People's Party)	6	1999년 창당, 좌파	
해적당(Pirate Party)	6	2012년 창당	
개혁당(LRP)	5	2016년 독립당에서 분리, 중도우파	
중앙당(CP)	2	2017년 진보당에서 분리, 포퓰리즘	
합 계	**63**		

< 아이슬란드 의회(Althingi) 의장단(2022.12월 현재) >

- Birgir Armannsson 의장(Speaker of Althingi)
- Oddny G. Harðardóttir 제1부의장(First Deputy Speaker)
- Lineik Anna Sævarsdóttir 제2부의장(Second Deputy Speaker)
- Asthildur Lóa Þorsdóttir 제3부의장(Third Deputy Speaker)
- Dilja Mist Einarsdóttir 제4부의장(Fourth Deputy Speaker)
- Andres Ingi Jónsson 제5부의장(Fifth Deputy Speaker)
- Jódis Skuladóttir 제6부의장(Sixth Deputy Speaker)

ㅇ 의 결

- 법률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후 전원 회의에서 3독회를 거쳐 단순과반수로 가결되며, 대통령 서명 후 발효(교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은 국민투표에 회부)

-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안은 국민투표에 회부, 부결될 경우 폐기

※ 2004.6월 Grímsson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한 대중매체법에 대해 헌정사상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사회적 파장이 일었으나(법학계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26조의 유효성에 의문 제기), 법안을 제출했던 아이슬란드 정부가 동 법안의 상정을 철회함에 따라 국민투표 없이 사안 종료

※ 한편 Grímsson 대통령은 <Icesave 예금 국가지불 보증법안*> 에 대해서도 2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2010.1월, 2011.2월), 2차례 모두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며(2010.3월, 2011.4월), 국민투표에서 동 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

- EFTA Surveillance Committee는 2011.12월 Icesave case를 EFTA 법원에 제소했으나, 2013.1.28. 아이슬란드 승소 판결

- 법원은 아이슬란드 정부의 EEA 협정상 관련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시스템 위기(system crisis with exceptional conditions)"라는 이유로 이러한 의무가 없다고 인정

* Icesave 예금 보증법안

- 2006년부터 아이슬란드 랜즈방키(Landsbanki) 은행이 영국과 네덜란드 고객들에게 Icesave라는 이름의 고이율 온라인예금 상품을 판매했으며, 2008. 10월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은행 파산으로 예금 지급불능 사태 발생

-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민 예금주 약 32만명의 피해액 67억 유로를 대신 보상한 후 아이슬란드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며, 아이슬란드 정부는 영국 및 네

덜란드 정부에 대한 보상을 아이슬란드 정부가 보증한다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국민투표로 부결

- 법안 골자(2011년 기준) : 향후 14년에 걸쳐 아이슬란드 정부가 영국 및 네덜란드 정부에 최소 40억 유로를 보상

2. 정 세

가 정치 정세

□ 2008년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아이슬란드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아이슬란드의 오랜 집권세력이었던 독립당(Independence Party, 중도우파 성향)의 정치적 리더십에 위기 발생

ㅇ 2009.4월 조기총선에서 중도좌파 연정(사회민주 연합-좌파녹색당)이 집권한 바, 이는 아이슬란드 근대정치 사상 처음으로 좌파정당이 집권한 사례

□ 한편, 2021년 9월 총선에서는 2017년 선거와 마찬가지로, 독립당 중심의 연정(독립당-진보당-좌파녹색당)이 구성

ㅇ 코로나 위기 후 연정 내 분열 심화 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 추세

나 경제 정세

□ 경제 지표

ㅇ GDP 성장률 : 2020년 -7.2%, 2021년 4.3%, 2022년 6.4.%

ㅇ 경제성장률 전망 : 2023년 2.5%, 2024년 2.3%

ㅇ 교역량 : 2022년 기준 수출 75억불, 수입 90억불
(수출입 모두 전년 대비 약 32% 증가)

□ 전통적으로 수산업 중심 경제 구조

ㅇ 아이슬란드 경제는 1955-2005년간 평균 약 4.0%의 성장률을 기록(동 기간 중 OECD 평균은 3%)하였으며, 특히 수산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고인플레이션, 외채증가, 수산 분야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불안정성을 내포

ㅇ 어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제조업(특히 전력집약산업) 육성

□ 재생에너지 산업

ㅇ 아이슬란드는 수력 및 지열(geothermal reserves)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에너지 수요 대부분은 재생에너지로 자급하고, 선박과 차량 운행을 위해서만 석유 등을 일부 수입

ㅇ 에너지원별 소비 비율은 지열에너지 66%, 수력발전 20%, 석유 등 화석연료 14% 순

ㅇ 생산된 전기는 전력집약산업인 알루미늄 제련에 주로 사용하며, 지열에너지의 경우 전력 외에 지역난방(건물·주택 난방), 양식업, 제설작업, 온실 등에 다양하게 활용

□ 금융위기 이후 관광산업 급성장

ㅇ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국 화폐 가치 급락으로 외국 관광객 유입이 급증하면서 관광업에 기회로 작용, 2021년 기준 관광수입이 GDP의 10%, 수출 수익 중 39% 차지(아이슬란드 상공회의소)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외국인 방문객은 2006년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2021년부터 회복세

다 대외 정책

□ (외교/안보) NATO 회원국으로서 친서방 노선을 추구

ㅇ 해안경비대(Coast Guard) 外 별도 군사력이 없으며(국방부 및 군대 없음), NATO를 통해 영공 방위 체제 유지

ㅇ 노르딕 각료이사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를 통해 노르딕 국가와의 협력 중시

ㅇ 2022.11월 이래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의장(2023.5월 까지) 수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협받고 있는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핵심 가치들에 대한 수호자로서의 유럽 평의회 역할 도모

ㅇ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서방의 대러 제재 및 대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참여중

※ 아이슬란드의 對우크라이나 경제 및 인도적 지원 : 15억 ISK
(OCHA.UNHCR.UNICEF.WFP 등 유엔 및 국제적십자사 지원)

※ 아이슬란드의 對우크라이나 국방지원 : 13억 ISK
(NATO의 종합지원 패키지 및 영국 주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펀드 지원 / 우크라이나 군을 위한 동계 장비 지원, 리투아니아 내 지뢰제거 훈련에 기여 등)

□ (경제/통상) 非EU회원국이지만, EEA를 통한 EU와의 경제협력 중시

ㅇ 1993년 EEA 가입으로 아이슬란드 수산물은 EU시장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

ㅇ EU 가입 추진 및 중단

- 2009년 집권한 중도좌파연립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EU 가입 및 유로화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2010.7.27 EU 집행위와 아이슬란드 간 가입 협상 공식 개시

- 공동수산정책을 취하고 있는 EU와의 어업권 쿼터 배정 문제, 아이슬란드의 전통적인 포경 허용 문제 및 2008년 아이슬란드 은행 파산시 피해를 입은 영국 및 네덜란드 예금주들에 대한 변상 문제(약 38억 유로) 등이 가입 협상 진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

- 2013.5월 중도우파 연립 정부로 정부가 교체되면서 EU 가입 협상 중단

ㅇ 2014.7월 아이슬란드-중국 FTA 발효 등 非EU/EEA 회원국과도 교역 확대 추진 중

3. 양국관계 및 주요현안

가 정무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62.10.10

ㅇ 주노르웨이대사가 아이슬란드 겸임

ㅇ 주한아이슬란드 대사 : 스테판 요하네손(Stefan Johannesson)
(일본 동경 상주, '22.11월~)

□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ㅇ 1996. 8월 아우스그림손(Ásgrímsson) 외교장관

ㅇ 2002. 3월 허경만 대통령 특사(BIE교섭)

ㅇ 2002. 9월 최성홍 외교장관

ㅇ 2007. 8월 강무현 해수부장관(BIE교섭)

ㅇ 2008. 6월 신재현 에너지자원협력대사

ㅇ 2013.10월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북극써클회의 참석)

ㅇ 2014.10월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북극써클회의 참석)

ㅇ 2015.10월 김찬우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북극써클회의 참석)

ㅇ 2015.11월 그림손 대통령 내외 (실무 방문), 스베인손 외교장관

ㅇ 2016. 6월 아르니 또르 씨그루드슨(Arni Thor Sigurdsson) 북극담당대사(한-아이슬란드 북극협의회 참석)

ㅇ 2017.10월 김영준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북극써클회의 참석)

ㅇ 2018. 2월 릴랴 알프레드스도티르 교육과학문화부 장관 (평창 올림픽 계기)

ㅇ 2019.10월 권세중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북극써클회의 참석)

ㅇ 2021.10월 최종문 외교부 2차관 (북극써클회의 참석)

ㅇ 2022.10월 홍영기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북극써클회의 참석)

나 경제 · 통상 관계

□ 교역

ㅇ 양국간 교역과 투자 규모가 여타 국가에 비해 크지는 않으나, 2006년 발효된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국은 경제·통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음.

-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호혜적으로 교역을 지속 확대 필요

*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한국 → 아이슬란드) : (1위)승용차, (2위)전기자동차 등
- 수입(아이슬란드 → 한국) : (1위)합금철(알루미늄), (2위)어류 및 수산물 가공품 등

□ 투자

ㅇ 한국 온라인 게임 개발회사 펄어비스, 아이슬란드 게임개발회사 CCP 인수(2018년, 2억불)

ㅇ 신한금융투자, 아이슬란드 제약회사 알보텍에 400억원 규모 투자(2019년)

□ 북극 협력

ㅇ 2013.5월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이후, 한-아이슬란드 북극협의회 개최(제1차 '16.6월 서울, 제2차 ' 18.10월 레이캬비크) 등을 통해 양국간 북극협력 강화

※ 아이슬란드는 2019.5-2021.5 기간중 북극이사회 의장국 수임

ㅇ 2013년부터 매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되는 북극서클총회(Arctic Circle Assembly) 참석 중

다 문화 · 공공외교 관계

□ 2022년 한국-아이슬란드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ㅇ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일(2022.10.10.)을 맞이하여 양국 정상 간 축하서한 교환

- 양국 정상은 1962년 수교 이래 60년간 양국이 문화, 과학, 북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우의가 강화되기를 희망

ㅇ 또한 레이캬비크에서 아이슬란드 외교 장·차관, 문화상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피아노 3중주 공연 및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10.11.)

- 참석자들은 공연 후 기립박수를 보내는 등 우리 연주자들의 높은 연주 수준에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높은 만족도 표시

※ 한편, 당일 리셉션 계기 주노르웨이대사는 아이슬란드 외교장관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2차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문화상무장관 또한 축사를 통해 한국의 엑스포 개최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 표명

□ 아이슬란드대학 한국학 부전공 개설

ㅇ 아이슬란드 최고 명문이자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인 아이슬란드대학*은 2022년 가을학기부터 한국학 부전공 과정 개설

* University of Iceland(국립), 1911년 설립된 아이슬란드 최대 규모 대학

- 현재 37명의 재학생들이 한국학 부전공을 선택하는 등(언어문화학부 내 최다) 다수의 재학생들이 한국학에 관심을 표하고 있음

- 아이슬란드대학 내 K-Pop 댄스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하는 등 아이슬란드 젊은층의 한국 문화 및 한국어에 대한 흥미는 상당히 높은 편

라 동포 현황

□ 개 요

ㅇ 재외동포는 약 20명 정도(자녀 포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주로 국제결혼 여성들로 구성

□ 재외동포단체

ㅇ 아이슬란드 한인회(2017년 출범), 한글학교(2019년 개교)

- 장미란 아이슬란드 노인연구소 연구원이 한인회장 겸 한글학교 교장을 맡는 중

- 재외동포재단에서 한인회 사업 및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중

□ 영사협력원

ㅇ 아이슬란드 내 우리 국민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조력 등 협력

ㅇ 장미란 한인회장 겸 한글학교장을 2020.12.1.부터 영사협력원으로 위촉 중

마 주요 현안

□ 유엔 등 국제기구 선거 관련 협력 지속

ㅇ 한-아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다자외교 무대에서 협력을 공고히 해 온 것으로 평가

ㅇ 올해 우리측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6월)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6월) 진출에 대해 아이슬란드는 서면 지지 입장 표명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2차 지지 확보)

※ 아이슬란드는 이례적으로 이탈리아 로마에 대한 1차 지지를 조기 표명

ㅇ 부산에 대한 2차 지지 확약 (2022.10.11.)

- 한-아이슬란드 수교 60주년 행사 계기, 주노르웨이대사와 아이슬란드 외교장관간 면담 시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2차 지지 약속

□ 아이슬란드 내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 지원

ㅇ 2022년 한국학부전공 과정을 개설한 아이슬란드대학은 세종학당 지정 등 한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한국학 과정의 지속·확대 희망

- 현재 개설된 한국학 부전공 과정은 별도 지원 없이 대학 자체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아이슬란드대학은 2023.1월 문체부 산하 세종학당 신규 지정 신청

※ 동 대학 일본학과(2003년 개설) 및 중국학과(2007년 개설)는 각각 일본재단(Japan Foundation)과 공자학원의 지원을 받고 있음.